

## 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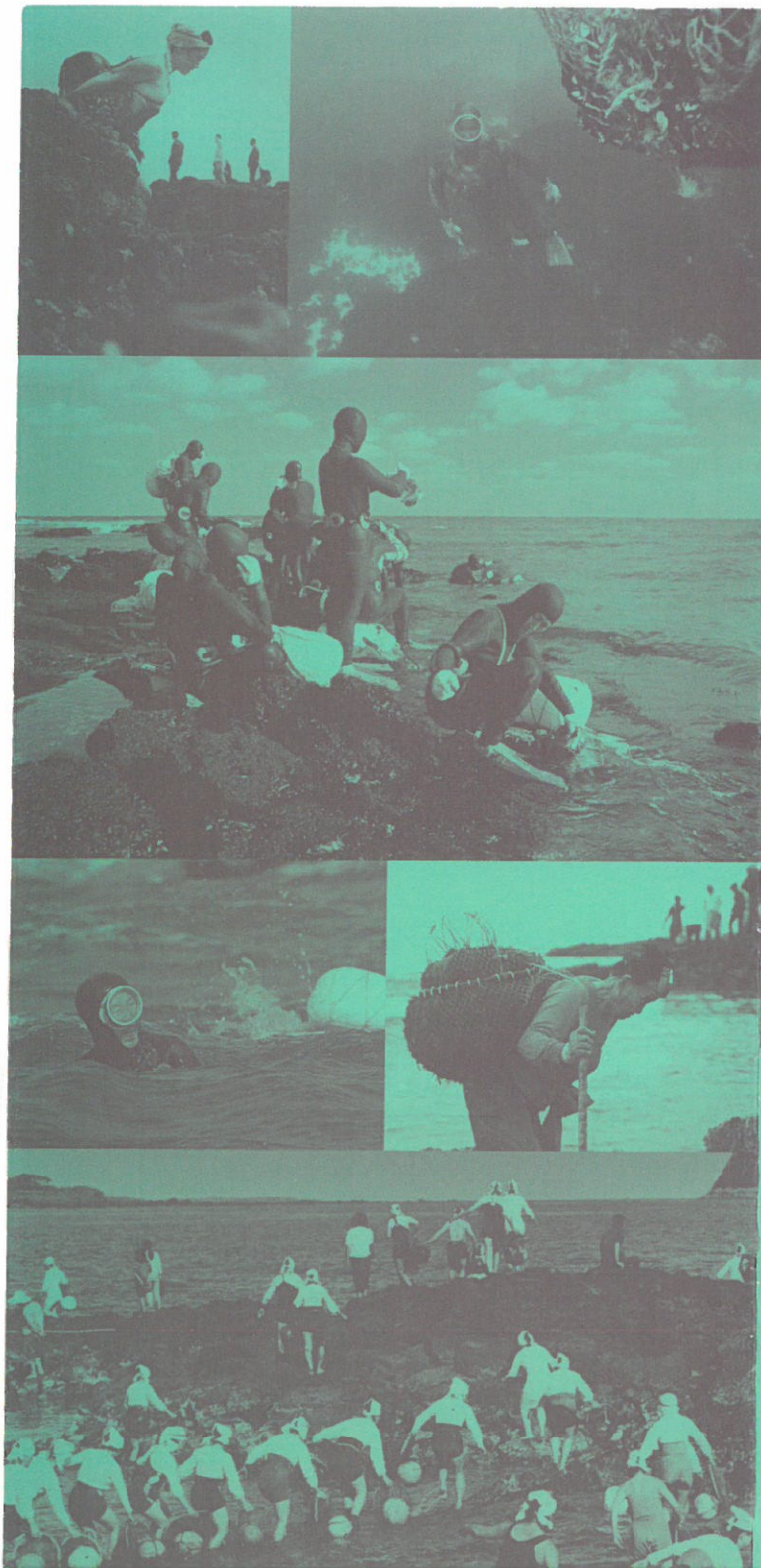
화산섬이라는 환경을 가진 제주의 어로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 어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해안의 수중에서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나잠어업<sup>網潛漁業</sup>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잠어업을 하는 이들이 해녀<sup>海女</sup>이다. 해녀는 잠녀·좀녀·좀네<sup>潛女</sup>, 잠수·좀수<sup>潛婦</sup>라 부른다. 본격적인 직업인으로서의 해녀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해녀는 대개 12살 무렵, 늦어도 15살 무렵에는 해녀로 입문하게 된다. 한사람의 해녀몫을 하는데에는 약 10여년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녀는 하군<sup>下軍</sup>부터 시작해서 그 기량에 따라 중군<sup>中軍</sup>, 상군<sup>上軍</sup>, 대상군<sup>大上軍</sup>으로 나눈다.

테왁망사리·테왁땃·조락·빗창·골각지

網瓢·碇·網袋·罾·鉤

현대 | 스티로폼, 나일론, 금속 등 | 너비 44.5 높이 33.2  
홍경자 기증



# 바닷가에서의 숨,

Life at Badang[sea], and Sumbisori[breathing sound]

# 그리고 숨비소리

2013.03.26 ~  
2013.06.16

국립해양박물관 4층



## 제주바다-바당-

제주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백만년 전인 신생대 제4기에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화산섬이다. 그래서 제주도 해안 대부분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해안이다.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은 바닷가를 들쭉날쭉한 암초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사방둘레는 칼날 같은 돌들이 묶여 있어 갯가에는 배를 댈 곳이 없다 四面劍石東立 浦邊無可泊舟(이형상李衡祥, 『남한박물관南宮博物』, 1704년(숙종 30))"고 하였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육지와는 다른 특이한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산간부락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耽羅巡歷圖 漢拏壯嶽

한국 | 1702년 | 종이 | 29.5×47.0  
보물 제652-6호 | 제주시청 소장



## 제주바다에서의 생산활동

제주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다의 특성에 맞게 어로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갯곳에서는 낚시, 거넷, 작살을, 바다에서는 풍선風船과 테우를 타고 나가 수경을 이용하여 물고기와 미역을 살렸고, 낚시나 국자모양 그물인 사돌로 갈치·옥돔·자리돔 등을 잡았다. 그 외에 돌출된 낭떠러지 사이에 드리워 잡는 덩그물이나 돌그물인 원개에서 죽바지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제주에서 소금생산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소금 빌레라 부르는 넓고 평평한 돌소금밭에서 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지금도 애월읍 구엄리에서는 돌소금밭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뜰채-죽바지-

杓

근현대 | 나무, 나일론 | 너비 29.0 길이 62.8  
제주바다 기증



자리그물

斑鱗光鯉魚網

현대 | 나일론 | 75.4×47.5×34.3  
제주바다 기증



## 제주의 배

제주의 전통배는 비교적 먼 바다까지 나가는 풍선風船인 덕판배와 연근해를 오가는 통나무배인 테우이다. 덕판배의 원형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테우는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 테우는 한라산 700~800m의 고지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로 만든다. 구상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부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해체하여 보관하였다가 테우를 이용하는 어로 시기음력 3월-10월가 다가오면 재조립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어로기간 동안 물을 먹은 통나무를 건조시킬 경우 무게가 가벼워져 항해속도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테우를 이용하여 멀치, 자리자리돔, 갈치, 오징어잡이 등의 연안 어로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때로는 발거름용 바다풀 채취 및 운반에도 사용하였다.

나무닷-낭닷-

碇

근현대 | 나무 | 너비 157.5 높이 105.6  
제주바다 기증



돌닷

碇

근현대 | 현무암 | 너비 길이  
제주바다 기증

